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5월 31일(금)

(음력 4월 24일)

Пятница

31 мая 2024 г.

№ 21 (1208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한글과 민족 얼을 지키는 파수꾼 - 러시아 사할린 한민족지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6월 1일 창간

75

사할린 한민족 역사와 함께 합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6월 1일 우리 새고려신문이 창간 75주년 기념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에 많은 축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반갑고도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은 더 재미있는 기사, 더 발전된 모습 등을 기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고려신문은 더 유익하고, 공정하고, 어둠을 밝히는 기사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사 사장으로서 신문 60주년, 65주년, 70주년, 이번에는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념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모든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예 콩쿠르는 꼭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좋은 글을 공모하기 위해 콩쿠르 기간도 9월 중순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애독자들을 향해 항상 저희 입에 붙은 말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독자 여러분 덕분에 신문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호부터 지금 까지 75년간 우리 신문을 읽는 애독자가 계속해서 저희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100세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우리 신문을 애독해주시는 이순귀 할머니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하신 이예식 선생님, 장세복 선생님, 이정자 선생님을 비롯해 교정을 보시는 박혜신 선생님, 면 편집을 하는 엄 엘레나, 번역을 하는 김기윤 씨 - 모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로 신문을 검토해주시는 김민정 작가님, 김미경 선생님을 비롯해 신문 발간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정성훈 피디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독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사랑,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사장**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6월 1일은 러시아 유일의 한국어 사회정치 신문인 '새고려신문'의 창간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년 동안 신문사는 운명적으로 역사적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주요 미션을 명예롭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 신문은 사할린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세대 한인들의 교육, 정보제공,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신문사는 국제적인 수준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활기찬 수많은 대규모 기획을 시행했습니다. 신문사의 기자들은 사할린주 체호브 명칭 우수 기사 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습니다. 새고려신문은 국제 전문 전시회 "2007 출판물"과 "2008 출판물"에 참가했습니다. 출판물전시회에서 새고려신문이 <2007년 출판물 황금폰드> 훈공기장으로 포상되고 사원 5명이 감사장으로 표창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신문사는 하바롭스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전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여러 번 건물을 옮기면서 주소가 바뀌고 신문 이름도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991년부터 신문은 "새고려신문"으로 개칭되었으며, 이는 이 독특한 간행물의 본질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고려신문은 여전히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며 미디어 영역의 급격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인터넷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애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 언론인들을 대표해 신문사 사원 일동에게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창의적 성과와 모든 일에서의 성공, 번영을 기원하고 명절 기분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언론인 동맹 사할린지부 간부회

친애하는 여러분!

뜻깊은 날을 맞이한 '새고려신문'사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75년 전, 러시아 극동에서 새고려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의 전문성과 기술 덕분에 여러 세대의 독자들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고려신문의 기사는 우리 지역의 진정한 연대기입니다. 이 간행물은 수년 동안 사할린주의 정치, 사회 및 문화 생활을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반영하여 사할린한인들의 모국어와 민족의 문화를 보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할린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데 대해 새고려신문사 원로들과 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기사와 새 애독자가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존경하는 새고려신문사원 여러분!

러시아에서 유일한 한글 신문 창간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배 빅토리아 사장을 비롯한 사원일동이 성의를 다하여 발간하는 한민족지를 애독하면서 저는 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새고려신문이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교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할린한인사회계에 자부심을 안겨주는 한글로 발간되는 새고려신문을 사원들은 물론이고 한인사회계가 장기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문창간 75주년을 기념하는 사원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포시에서 안춘대전 새고려신문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사할린 새고려신문 창립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5년 동안 사할린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 동포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창립 이래로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사할린 동포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도 되지 않았던 그 긴 세월 동안 민족의 글을 잊지 않고자 한국어 신문 발간을 위해 노력한 전·현직 새고려신문사 임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새고려신문은 오늘날 전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한민족 동포언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고려신문이 동포들의 힘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포신문이 될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사회의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창립 7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사회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소장 박 상 태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4년 6월 1일 - 신문 창간 75주년

새고려신문의 역사는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75주년은 정말 크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창의적 장수를 자랑할 수 있는 출판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새고려신문은 구소련 한민족 언론의 명실상부한 리더입니다. 신구시대의 전환기에 탄생한 신문은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물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수천 명 조선인의 가슴 아픈 전기와 생애의 연대기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모든 출판물에 수많은 전환점에서 살아남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고려신문은 이걸 해냈습니다. 물질적, 도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언제나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신문을 위해 항상 가치 있는 언론인들이 일한 덕분입니다.

새고려신문 창간기념일은 신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발전하고 있는 신문사 원로들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의 신문사 사원들이 한민족 저널리즘의 최고의 전통을 이어가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가길 바랍니다.

건강, 행복, 번영, 성공, 모든 노력에 대한 행운, 인내와 감사할 줄 아는 애독자들 기원합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한인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존경하는 새고려신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할린동포 여러분!

현재 러시아에서 발간되는 유일한 한글 신문인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5년 전, 새고려신문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창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문은 사할린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할린동포의 권익 증진과 정체성 확립 등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자리잡았습니다.

새고려신문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새고려신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동포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인 새고려신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할린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신문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정보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권경석 배상**



새고려신문은 지역동포 대변이자 지킴이다

만고풍상 온갖 시련을 겪어온 사할린 지역동포들의 대변자이자 지킴이인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49년 6월 1일 창간한 <새고려신문>은 모진 겨울을 이긴 인동초처럼 한민족 근·현대사의 아픔과 영광을 함께 하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새고려신문>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1세와 그 후손들에게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선 것은 물론, 단비와 같은 고국의 소식을 전하면서 때로는 죽비를 내리는 용기로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른 현재는 변방에까지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도 함께, 민족의 영광도 함께!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할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024년 5월 26일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장 김명곤**



존경하는 배 워토리아 사장님, 새고려신문사 사원 여러분!

1949년 6월 1일 새고려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올해는 신문사 편집진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가 신문 창간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신문은 이름을 여러 번 바꿔왔습니다. 초기 독자들은 "조선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30년 동안은 "레닌의 길로"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은 신문이 늘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 정보센터 역할을 해왔으며, 신문 편집국은 항상 우리 구독자들에 대해 배려해주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고려신문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센터이며 귀 신문 없이는 사할린 한인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간 75주년이라는 뜻깊은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 한인 단체들을 대표하여 신문사 사원들에게 건강과 행복,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새고려신문이 늘 번영하고 사할린 한인들을 연결하며 뭉쳐주는 중심지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사할린한인연합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극동 및 시베리아
이산가족회(하바롭스크)
중앙아시아 사할린
향우회(알마티,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이 모 저 모

사할린, 아빌림픽스 수상자 선정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 경연 대회인 아빌림픽스(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챔피언십에서 195명의 사할린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할린대회에는 총 35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우리는 1등 65명, 2등 65명, 3등 65명, 총 195명의 우승자와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라고 주 포용적 직업교육센터 울리아 돌라 센터장이 말했다.

우승자는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연례 전국 챔피언십에 섬 지역을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대회에는 14세 이상 학교학생, 대학생, 그리고 65세 이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섬의 여러 교육 현장의 34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올해 대회에는 플로리스트(꽃장식), 푸드 아트 데코(요리 장식), 피자 만들기 마스터 같은 새로운 부문이 생겨 경쟁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잠재적 고용주와 교육 기관의 교육자로 구성되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выбрали победителей «Абилимпикса»

На Сахалине 195 человек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а» - конкурса мастерства для людей с безгранич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сего в состяз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почти 350 человек.

«У нас в этом году 65 первых мест, 65 вторых и 65 третьих - всего 195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нклюзив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Юлия Домра.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ежегод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Москве в октябре.

В состяз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школьники от 14 лет, студент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до 65 лет. Они боролись за награды по 34 компетенциям на нескольких образова-

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островов. В это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конкурировали в новых компетенциях, таких как флористика, мастер пищевого арт-декора, мастер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иццы. В жюри входили потенциальные работодател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사할린, 요양원의 두 노인 커플이 결혼식 올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시의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두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이 소식은 텔레그램 채널 "사랑을 담아, 당신의 섬"에서 보도되었다.

75세의 안토니나 니콜라예브나와 64세의 알렉산드르 유리예비치는 운명을 같이하고자 했다. 남자는 올해 2월에 이 기관에 입주했다. 그들은 창작의 밤 행사에서 서로 반했다. 남자는 즉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고 여인에게 프로포즈 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두 번째 부부는 혼인 신고 이전에 25년 이상 함께 살았다고 한다. 아나톨리 이와노비치와 미이니제이투나 순가토브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부터 시설에 살았으며, 그 전에는 이웃 마을인 아르코워에 거주했다. 아나톨리 가장은 연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응원이 라고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оженились две пожилые пары из дома-интерната

В городе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узаконили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две пары из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 любовью, ваши острова».

Связали свои судьбы 75-летняя Антонина Николаевна и 64-летний Александр Юрьевич. Последний поселился в учреждение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Они сразу понравились друг другу на творческом вечере. Мужчине привык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немедленно и сделал возлюбленной предложение. Она согласилась.

Вторые молодожены удивили тем, что до дня реги-

страции брака совместно проживали уже более 25 лет. 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и Миинизейтуна Сунгатовна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с 2021 года оказались в доме-интернате, до этого пара проживала в соседнем селе Арково. Глава семьи утверждает,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отношениях - это уважение и поддержка.

사할린, "2024 봄" 농업 박람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중앙 박람회장에서 수천 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농업 박람회가 열렸다.

섬 지역의 9개 구역에서 200개 이상의 현지 농산물 생산자들이 박람회에 참가해 제품을 선보였다. 그중에는 대규모 농업 기업, 농장 및 개인 보조 농장, 장인, 정원사 및 원예사, 식품 기업 및 수산업체가 있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문객들은 예술단들의 공연과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문화 휴식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누구나 펠트로 책갈피를 만들고, 천연색으로 운명의 실을 엮고, 다른 흥미로운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하고, 바란키를 걸어둔 사모바르로 풀린 차를 마실 수 있었다.

행사 하루 만에 씨감자 1톤 이상, 육류·유제품·빵 제품 2톤, 모종 및 묘목 2만 뿌리 등이 판매됐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Весна-2024»

Масштаб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развернула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Центральная ярмарк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ую посетили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ярмарке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200 местных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з 9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реди них - круп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фермерские и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ремесленники, садоводы и огородники, пище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8면에 계속)

사할린, 뵈체고르스크 지진 희생자 추모식 거행



5월 28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역 광장 옆에 있는 뵈체고르스크 지진 피해자 추모비 앞에서 지진 희생자의 친척과 뵈체고르스크 전 주민, 주 및 시 행정부 관계자, 성직자 및 시민이 모인 가운데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헌화 행사에 참여했다.

1995년 5월 28일 밤, 강력한 지진이 오하 지역의 정착촌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했다. 이 자연재해로 뵈체고르스크 주민 3197명 중 20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뵈체고르스크를 무너뜨린 지진은 지난 100년 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파괴적인 지진으로 꼽히고 있다. 불과 400여명만이 이 지진에서 구조되었다. 애도 행사에서 정교회 성직자들은 추모 예배를 드렸다. 지진 희생자들을 1분간 묵념으로 추모한 후 헌화가 이어졌다.

(취재: 이예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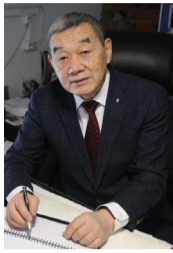
백규성, 하바롭스크 명예시민으로 확정

올해 하바롭스크 명예시민 자격을 두 후보자가 신청한 가운데 한 분은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연합회 회장이자 러시아 민족회의 하바롭스크 지역지부 협의회 제1부위원장 백규성이다. 또 다른 분은 '민속공예'어린이창의력센터 올라 주첸코 소장이다.

얼마전 하바롭스크시 행정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공개투표 결과가 나왔다. 백규성 회장은 11,461표(58.78%), 올라 주첸코 소장은 8,093표(41.51%)를 받았다. 최종 결정은 5월 28일 하바롭스크 시 두마 회의에서 내려졌는데, 시두마 의원들의 비밀 투표 결과에 따라 백규성에게 도시 명예 시민 칭호를 수여하기로 했다. 27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백규성 씨는 찬성 26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명예시민 수여식은 5월 31일 하바롭스크 도시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사할린출신 백규성 회장과 좋은 인연을 맺어온 새고려신문사는 명예 시민 칭호를 축하드린다.



사할린 한인 2세의 '서러운 아리랑'

이병일(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전호의 계속)

고국 정착 과정에 난제와 장벽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재를 다시 가져와 드린 적이 있다. 정착 지원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은 채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맡겨 둔 느낌이 든다.

사할린 한인 2세대 분들의 한과숙원은 KBS 한민족방송이 주관하는 한민족 체험수기대회에서 수상한 분들의 수기에 잘 드러난다. 2021년(아리랑 무용단 박영자 단장), 2022년(유즈노사할린스크 김경순 님)엔 성인 부문 대상을 받았고, 2023년엔 성인부문 우수상(코르사코프 오석만 님)을 받으셨다. 모두 사할린 2세대 한인 들이다.

2021년 수상자 박영자 님은,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다시 이주정용 되셨다가 끝내 일본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인사드리던 기막힌 이야기를 쓰셨다. 인터뷰에서 "KBS가 주는 이 대상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기 전에 사할린 한인 전체에 주는 상"이라며 "사할린에서 다시 이주정용으로 일본 탄광으로 끌려가서 타국에 묻히신 외할아버지께 이 상을 바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셨다.

2022년 수상자인 김경순 님은 90년대 중반 병든 노부모가 한 달간의 모국방문에서, 50년 만에 한국에서 큰아들과 상봉 후 다시 이별하여 사할린에 돌아와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끝내 영주귀국 신청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서러움에 관한 처절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쓰셨다.

특히 김경순 님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모에 대한 기억, 조국 귀환에 대한 부모의 열망, 부모님과 10살 아들(김경순 님의 오빠)과의 이별 장면 등을 써서 게 보내셨다. 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추어 바꾼 가사로 불러 보았는데, 부르다가 여러 번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터져 한참 후어나 완전히 부를 수 있었다. 그 노래 영상들을 내가 김경순 님께 보냈고 김경순 님은 한국의 조카들(큰 오빠의 자녀)에게 보내 드렸다. 그러면 조카들로부터 아버지 어린 시절을 기억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고 한다.

박영자 님의 외할아버지 이야기와 김경순 님의 부모님과 오빠에 대한 사연, 오석만 님의 어머니, 아버지께 관한 사연은, 새고려신문과 우리말방송에도 게재되고 방영되었다. 김경순 님 사연은 2023년 1월, KBS 한민족 라디오방송에서도 사할린과 전화 연결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서러운 아리랑

사할린 한인 2세 김경순 님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수업에서 '그 겨울의 찻집' 노래를 배우신 후 '눈물의 섬, 사할린'으로 가사를 바꾸셨는데 내용은 이렇하다. 가사 중에 특히 "사무친 한을 풀어 주세요"는 대한민국에 외치는 절규에 가깝게 느껴진다.

사할린으로 끌려 왔어요. 조선 땅에서 그 옛날,
일본 놈들의 시달림 받고, 늘 괴로움에 떨었죠.
가고픈 고향 한국 땅으로, 부모형제 사는 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한숨만 저절로 나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워라 내 고향.

사무친 한을 풀어 주세요, 하루 속히 날아 가고파.

그늘진 세월, 고향 그리며, 철천지 한이 되었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꿈에서 본 내 고향.

그리고 '칠갑산' 노래의 곡조를 생각하면서 부모와 이별하는 어린 10살의 오빠의 심정을 생각하며 지은 '이별의 부두' 가사는 이렇하다.

부모 잃은 어린 마음을, 그 누가 알아 주리요.

외롭고 서럽던 아픔, 누구에게 원망 주리요.

어머니는 내게 같이 떠나자, 애달게 속삭였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끝내, 따라간다는 말을 못했소.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다오.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어머니는 내게 같이 떠나자, 애달게 속삭였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끝내, 따라간다는 말을 못했소." 이 부분이 가장 가슴을 깊게 찔러 목땀에 노래를 멈추게 하는 부분이다. 10세의 아들(김경순 님 오빠)은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따라간다고 말을 못한 것이다. 그 이별이 50년간 지속된 것이었고, 50년 후 노환을 지닌 채 한 달간 모국방문하여 아들을 만났지만, 영주귀국 신청 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이다.

김경순 님은 아리랑의 민족담계, 부모님과 큰오빠의 오십년 이별과 한번의 만남, 또 이별과 사별의 한, 전체 사할린 한인동포들의 고통의 역사를 담아 아리랑 가사로 쓰셔서 내게 보내셨다. 적절한 아리랑 곡을 찾아 긴 가사를 모두 담아 노래로 불러서 보내드렸다. 도중에 여러 번 목이 메었다. '한맺힌 사할린 아리랑' 가사는 이렇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제에 끌려 사할린 왔소. 모질던 징용살이 누가 아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넘어간다.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믿음에 살아 낸 세월

[랩]
한 달만 있다가 돌아간단 그 말, 어찌나 기다렸는지.
밤이면 라디오 틀어 놓고서 혹시나 우리를 찾을까 봐.
애타게 기다린 자식 형제들 오십년 넘어서 만나보네.
수십년 세월을 참아 왔는데 언제 또 고향 땅을 밟아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기다리다 지쳐 세상 뜨신, 우리네 부모님들 불쌍하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부모들 사무친 한 생각하면, 애타던 자식들도 가여워라.

너나없이 서럽고 아파 어이하오.
(다음 호에 계속)

사할린국립대, 제2회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 열어

지난 5월 27일(월) "우선순위 2030. 극동지역" 국가프로그램 실행의 일환으로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아시아와의 대화'여름국제학교 시작되었다.

이번에 2번째로 진행되는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의 공식개막식은 지난 28일(화) 오전 10시 사할린국립대에서 열렸다. 사할린국립대의 니콜라이 후르차크 부총장과 임 엘베라 언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이 행사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후르차크 부총장은 최근에 대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며 새로운 기획이 많다는 걸 강조했다. 특히 '우선순위 2030' 국가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파트너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다며 국제 학교 참가자들에게 성공을 기원했다.

임 엘베라 학장 역시 이 기획의 중요성을 말하며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니 국제학교가 있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사할린학생들과 어울려서 서로 많이 친해지고, 또한 학생들의 전공이 아시아와 관련돼 있으니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도 이 우정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국제 여름학교 '아시아와의 대화'는 정치, 경제, 인문 분야 및 기타 관련 상호 작용 분야에서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명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교 프로그램은 건강 유지를 위주로 하는 "동방 무술의 철학과 실천", 사회 인도 주의적인 "문화는 동양 문명을 이해하는 길", 경제 "비즈니스 아시아: 사업 실행의 특이 사항"이라는 세 가지 실천 중심 교육 트랙으로 구성된 가운데 사할린국립대학교를 비롯 모스크바, 벨라루스 등 대학의 주요 교수의 강연, 실습 수업, 활동 교실, 견학 투어와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에는 학교학생, 대학생, 초·중·고교 강사 및 대학 교수 총 100명이 참가한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이번 학교에는 사할린국립대를 비롯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모스크바 주립 사범대학교, 암모소브 동북연방대학교(야쿠치아 공화국), 이르쿠츠크 국립 연구 기술 대학, 국립 연구 대학 경제 고등 학교(모스크바),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 임마누엘 칸트 발틱 연방 대학교(칼리닌그라드), 벨라루스 공화국 민스크 국립 언어 대학교, 태평양국립대학교(하바롭스크) 총 10 대학이 참여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연구하는 이름난 동양학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필자는 모스크바 국립 연구 대학 고등 경제 학교의 웨라 위쉬나코와 사회 경제 정보 이전



및 관리 센터 소장의 '과학 및 고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이전'강연을 재미있게 들었다.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견학하고 동양미술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또한 프로젝트에는 사할린주한인회,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와 '토르나도'스포츠클럽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스포츠클럽에서는 '동방무술의 철학과 실천'트랙을 담당하여 학교 참가자들에게 태권도 기초(겨루기, 격파 등)와 동양무술의 철학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서는 31일(금) 한인문화센터에서 한식 잡채 요리 교실을 연다고 전해졌다. 이날 저녁에는 학교 폐막식을 열 예정이다.

나흘 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유익하고 바쁜 일정의 프로그램이다.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здравляем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 юбилеем!

1 июня исполняется 75 лет «Сэ корё синмун» - единственной в Росси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газете, выходяще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а была созда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бюр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йкома ВКП(б) от 9 мая 1949 года. Директива предписывала организовать в Хабаровске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пуск газеты «Чосон нодонджа»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тиражом 7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Именно тогда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ных на остров японцами и лиш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лучило возможность читать прессу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В сентябре 1950 г. редакция переехала ближе к своим читателям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штат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32 человека, а в типографии газеты работало 18 человек. Газета являлась орган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кома КПСС и должна была проводить идеологию компартии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1961 году газету переименовали в «Ленины гилло»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Несмотря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она сыграла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В конце 1980-х – начале 1990-х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та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убликуемые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Там же помещались и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е разговорники, составленные сотрудниками редакции. В 1989 году работники газет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учебник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и редакции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развитием газеты рос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её сотрудников. На начало 1990 года четверо из них являлись заслуже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культуры РСФСР, пятнадцать – членами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ССС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вела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о-организато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июле 1990 года она стала инициаторо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

ного концерта популярных арт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Зрителями эт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около 3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Они приезж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 всего острова, прилетал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Хабаровска.

1 января 1991 года название газеты было изменено н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 1 января 1992 года она перестала быть органом обкома партии и стала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газет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годами росла популярность издания, особенно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трудное время, когда повсеместно закрывались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газета, вещавшая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оставалась единственн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и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газета сыграла и в поиске разрозн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Газета освещает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знакомит с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и обычаями Кореи. Здесь находят отражение все события и проблемы, касающиес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Это вопросы репатриации,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возрождения,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а страницах изд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о немало материалов, посвящённых межэтн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и вопросам толерантности.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читателей пользуются интервью-зарисовк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аспоры, достигшими успехов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Газета реализовала немало ярких,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Например, в 2011 году выиграла грант Фонда журналис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организовала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Жизнь в Корею».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не раз становились лауреа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 А.П. Чехова, в котором определяют лучшие журналистские работы года. В 2007 году газета была отмечена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Золотой фонд прессы». Именных дипломов и знака отличия удостоились пяте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дакции.

Нынешний редактор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пришла в газету в 1983 году. Успела поработать курьером, машинисткой, выпускающей, ответственной за компьютерную часть. Заочно окончи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журналистика», в 1994 году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зуч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курсах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е. А когда вернулась, тогдашни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Ан Чун Де (Наталья Максимовна) предложила ей: пиши на корейском. Виктория до сих пор помнит, как провела всю ночь над первым материалом, который писала буквами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Еще один ветеран редакции –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 Ли Е Сик (Михаил Львович), он в штате с середины 80-х годов, а до этого сотрудничал с газетой как внештат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Человек творческий и увлеченный, он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 теме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го персональные фотовыставки побывали в нескольких город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Японии, а в Сеуле был издан его авторский фотоальбом.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значает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 и это очень точно отражает суть уникального печатного издания. Газета по-прежнему открыта для всего нового. Например, в октябре 2022 г. редакция запустила новый проект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 серию интервью с ярк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Газета успешно адаптируется к стремительным переменам в сфере меди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на современна - и поэтому востребована своими верными читателями!

От все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здравляем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с юбилеем! Желаем новых творческих достижений,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праздн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Президиу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Бейк Ку Сен —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Хабаровска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Хабаров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состоялось закрыт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присуждение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кандидатам,



чьих заслуги 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город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значительными. В повестке дня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ие кандидатур Бейк Ку Сена и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родные ремесла» Ольги Жученко.

Бейк Ку Сен, является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ы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илиал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и президенто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этих постах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ейк Ку Сен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улучшением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дл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гиона. Он также известен своей организ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и привлекает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из состава Ассамблеи. За свои заслуги ему были присуждены различные награды, включая премию имени Якова Дьяченко, а также з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ый лидер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большинство депутатов поддержали кандидатуру Бейк Ку Сена. Э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встречено с одобр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так как Бейк Ку Сен имеет долгую историю актив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значительные достижения в области укрепления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продвиж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Бейк Ку Сен, помимо своей осно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ах,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понимания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Присуждение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Бейк Ку Сэну подчеркивает признание его усилий и достижений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его важн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позитивного имиджа Хабаровска как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 богатого гор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абаровска.

От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добавим, что Бейк Ку Се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газетой его связывают самые теплые отношения, он не раз являлся героем наших материалов. От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Бейк Ку Сэна с таким почетным званием!

Главному редактору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важаемая Виктория Идюновна!

1 июня 1949 года основана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В этом году Вы,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а также все мы, Ваши читатели, будем отмечать 75-летнюю годовщину этой памятной даты.

За время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азета не раз сменила свое название. Первые читатели знали е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Чосон нодонджа» (조선 노동자,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В течение тридцати лет газета выходила с названием «Ленины килло» (레닌의 길로,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Но все эти годы неизменным было то, что газета был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всегда была сформирована из людей, отдающих все свое время заботам о нас, ваших читателях.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без такого важного источника информации как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Разрешите от лиц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ить Вас и в Вашем лице весь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 замечательным юбилеем – 75-летием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газеты. Искренне желаем всем сотрудникам газеты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а нашей любимой газете – желаем процветать и надолго оставаться связующим центром для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глубоким уважением,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КО АСК),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 МООК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зрозн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МОО РКС ДВС)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Алматы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редней Азии «Хянуф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О ОСК), г.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75 летний юбилей – большая, поистине знаковая дата! Лишь единицы из существующих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й могут похвастаться такой историей и таким творческим долголети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 бесспорный лидер корейских СМИ. Рожденная на переломе старого и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газета прошла трудный путь. История издания – это живая история нашего народа, сложенная из тысяч пронзительных биографий корейцев и хроники их жизни на фон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ережить столько переломных моментов и выжить – это дано не каждому изданию.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материальные и моральные, газета всегда развивала культуру народа и сыграла больш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Все эт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в газете всегда работали достойные журналист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юбилей «Сэ корё синмун» – это праздник для ветеранов газет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она, пережив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вышла и развивается сегодня.

Желаем нынешнему поколению сотрудников газеты продолжать лучши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идти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и быть в тренде.

Всему коллективу добр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успехов, удачи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стойкости и благодарных читателей.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75 летний юбилей – большая, поистине знаковая дата! Лишь единицы из существующих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й могут похвастаться такой историей и таким творческим долголети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 бесспорный лидер корейских СМИ. Рожденная на переломе старого и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газета прошла трудный путь. История издания – это живая история нашего народа, сложенная из тысяч пронзительных биографий корейцев и хроники их жизни на фон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ережить столько переломных моментов и выжить – это дано не каждому изданию.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материальные и моральные, газета всегда развивала культуру народа и сыграла больш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Все эт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в газете всегда работали достойные журналист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юбилей «Сэ корё синмун» – это праздник для ветеранов газет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она, пережив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вышла и развивается сегодня.

Желаем нынешнему поколению сотрудников газеты продолжать лучши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идти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и быть в тренде.

Всему коллективу добр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успехов, удачи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стойкости и благодарных читателей.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Realmeter: Рейтинг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едьмую неделю на уровне 30%

30,3% граждан РК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работу Юн Сок Ёля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а 66,1% дают отрицательную оценку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2.506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веденного с 20 по 24 мая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Рейтинг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охраняется на 30-процентном уровне семь недель подряд. Полож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сократилась на 1,1%, а отрицательная выросла на 0,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2,0%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тдельного опроса 1.004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веденного 23-24 мая, рейтинг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составил 35,2%, а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 33,9%. Среди н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лидирует Партия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которую поддержали 13,8% опрошенных. 7,6% опрошенных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 ни одну партию.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скорит провед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скорит реализацию мер в рамках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ак Мин Су, выступая 27 мая на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Он призвал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сделать для этого всё от них зависящее,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ить усилия по разрешению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разногласий с врачами, которые недовольны реш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мет меры для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системы неотлож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нфликта, - отметил Пак Мин Су. Он потребовал от больниц провест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базирующимися врачами-интернами, чтобы побудить их вернуться в больницы. Накануне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призв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тудентам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достой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портные тарифы на свеж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будут снижены

Цены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и нефтепродукты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емного снизились, но сохраняется высокая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из-з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предстоящим летом.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Ким Бён Хван, выступая 24 ма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мет упреждающие меры, продлив сокращение тарифных квот на импор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 увеличи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резервы. В качестве «превентивных шагов» будут расширены программы скидок на сушёные морские водоросли, а после корректировки базовых тарифных ставок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зти 825 тонн водорослей из-за рубежа. В преддверии высокого летнего спроса будут расширены поставки куриного мяса. Кроме того,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будут взяты под контроль цены на проживание, транспорт и друг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На XXVIII фестивале в Пучхоне покажут 3.418 фильмов из 84 стран

На XXVI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в Пучхоне (BIFAN),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4 по 14 июля,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418 фильмов. Это на 20% больш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ем фестивале, состоявшемся в 2023 году. Среди них 1.311 зарубежных фильмов из 84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293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и 1.018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а также 1.707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 том числе, 149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и 1.558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По числу фильмов предстоящий фестиваль станет самым крупны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Крупнейшим зарубежным участником являются СШ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169 фильмов, далее следуют Тайвань – 118, Япония – 110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 98.

Рождаемость в РК достигла нового минимум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60.474 новорождённых. Это более, чем на 6%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щи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число детей, рождаемых женщиной в течение жизни, составил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0,76. Это рекордно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за всю историю ве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сокращением рождаемости в РК растёт смертность, что связано со стар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умерли 93 тысячи южнокорейцев, что на 5,2%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сократилась на 3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RKI

КНДР забросала Южную Корею десятками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мусором

Как минимум полторы сотни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различных размеров,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в корзинах содержали бытовой мусор, прибы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По мнению Сеула,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 данные действия КНДР наруш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это стало эмоциональным ответом Пхеньяна на ак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ктивистов,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в КНДР листовки критического содержания.

О прибытии необычных "северных гостей" сообщили 29 мая в Объедине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НШ ВС РК), в котором стали фиксировать нашествие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еще с ночи 28 мая.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шары запускались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КНДР в сторону Юга. Часть шаров быстро опустилась на землю, а часть улетела достаточно далеко на юг, вглубь территории РК и до сих пор путешествуют по воздуху. В корзинах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ес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й бытовой мусор, тогда как другие - пусты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ОКНШ ВС РК зафиксировали около полутора сотен таких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Их находят или видят в воздухе почти во всех провинциях Южной Кореи - Канвон, Кёнги,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Чол-

ла,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Кенсан.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оенные РК мобилизовали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для отслеживания и обезвреживания "мусорных шаров". Впрочем, судя по содержанию, шары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рьезной опасности, но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трогать "пришельцев с Севера", а немедленно сообщить о них в полицию, военным или спецслужбам по установленным телефонным номерам.

Как полагают в Сеуле, эти действия стали эмоциональным ответом Пхеньяна на предыдущие заброс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активистами из Юга в КНДР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листовок и прочи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доставки которых тож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ещала сбивать данные шары, но, как видно, избрала путь "симметричного ответа", забросав южан мусором.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ласти РК назвали действия КНДР "наруш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возложив все последствия за это на Пхеньян. При э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не стали давать правовую оценку заброски листовок своими активист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а работу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KASA

В понедельник 27 ма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Сачхон, расположенном на самом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фициально начала работу Корейска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Данная структура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реализаци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Я счастлив, потому что мы смог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чало работы KASA, которая была мечтой для мно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космоса. Я чувствую одновременно большое воодушевление и огром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 заявил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Юн Ён Бин, ставший первым директором Корейско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Чиновни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явление KASA позволит преврат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в полноценную космическо-эконом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путем создания экосистемы, где буду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как частные, так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институты и прочие структуры.

Отметим, что KASA была создана согласн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который в январе приняло Националь-

ное собрание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ия различных госорганизаций,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космос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KASA расположена в городе Сачхон,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Кенсан, что на самом юге страны, примерно в 300 км от Сеула. Этот регион известен как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и косм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РК. Бюджет организ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определен на уровне 758,9 млрд. вон или 556 млн. долл.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штат сотрудников насчитывает 110 человек, но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он будет увеличен до 293.

KASA ждут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ены официальным планом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реди гла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на ближайшее будущее -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 ракет-носителей многоцелев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зворачивание собственно 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ы глобаль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и лун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частно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2032 г.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Луны Южная Корея высадит собственный луноход.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Сачхон, Р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예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На ремонт всех дорог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ребуется триллион рублей

В ходе отчет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звал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вызов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Исторически большинство дорог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грунтовом исполнении. Их ремонт и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обошлись бы бюджету в триллион рублей. Поэтому в регионе формируют планы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емонта и развития автодорожной сети, синхронизируя их с реаль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бюджета.

– Дороги – это то, на что мы сейчас должны обратить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и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решать имеющиеся вопросы. Главная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аяся проблема на островах – низкий процент дорог с твердым покрытием. Мы привлекли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за счет эконом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ддерживаем дорожный ремонт в районах. В нормальном виде должны быть не только региональные и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но и дороги в районах, там должен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оводиться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и устраняться дефект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 там, где живет большая часть людей. Мэрам надо обратиться на это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Это их прямая зон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уже 150 км автодороги.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еще на 58 км, в 2025 – закончить оставшиеся 54 км, после чего асфальт будет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трассы.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также продолжают дорожные работ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делали 31 км дорог, в 2024м –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еще столько же. Пол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трассы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к 2030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ступили к продлению улицы Горького на юг,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дублером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В 2025 году Горького продлят до микрорайона Зима, также расширят до четырех полос участок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на выезд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торону Корсакова. В 2028 году Горького выйдут на Охотскую трассу,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згрузит транспортный поток на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акж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ьезд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ая соединит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2024 году сдадут первые 8,3 км на участке от Троицкого до Дальнего, что позволит вынести транзитный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из города и частич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 пробками. В 2027 году сдадут еще 15,6 км, после чего специалисты выйдут на трас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районе Березняков и передадут дорогу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 Частенько стоишь в пробках, если появится дублер и обьездная, проблема пробок будет решена. И в центр быстро можно будет доехать, и на море без проблем. Сейчас, конечно, в выходные тяжело из города выехать, в сторону Корсакова и Охотского все стоит. Надеюсь, дорогу сделают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иколай Сергеев.

Сегодня за состоянием дорожной се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ледят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Заявки от жителей в оперативном режиме обрабатывают через сервис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все работы по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дорог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до 1 июн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 до 1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июня увеличат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окупку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2023 году 2139 домовладений подключены к сетевому газу.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ставляет 61,4%.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перехода на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с 1 июня на островах увеличат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риобретение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о 180 тысяч рублей. Итоги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звучил в своем отчете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 Наша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газом как частные дома, так и объекты ЖКХ. В 2023 году мы задали хороший темп, и важно его не сбавлять, чтобы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завершить программу по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вопрос очень важен, так как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омфорт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по программе догазификации подключают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бесплат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на покупку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152 тысячи рублей. С 1 июня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увеличивается до 180 тысяч рублей.

В 2023 году к газу подключили свыше 2 тысяч домовладений, 77 предприяти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объекты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10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остроили 27 объектов газификаци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200 км. Газифицированы Макаровский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ы. К сетевому газу подключены 37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около 33 тысяч абонентов.

– Президент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садоводческ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товарищ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Н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4 тысячи жилых домов, 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мы должны их полностью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газ также переводят объекты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11 новы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запущены в Тым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ближайшие 4 года в области построят еще 59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межпоселковые газопроводы области прирастут на шесть объектов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134,1 км, а внутрипоселковые увеличатся на 250 км, будут газифицированы еще 25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более 3 тысяч домовладений. Программа газификации и догазификации частных жилых домов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Ее реализация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для людей проходит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панией «Газпром». К 2027 году будет завершена технически возможная сетевая газификация области.

– Мы заслушали очень емкий, содержательный доклад главы региона, за которым стоит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Хотелось бы сделать акцент на том, что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наш регион показал хорошую динамику по наращиванию темпов газифик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ом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года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лностью, в том числ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и регион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ется с этой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ой,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Еще одной темой доклада главы региона стал вопрос энергообеспечени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 2019 года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нергетики РФ и ПАО «РусГидро» на островах реализуют программу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УРЭК).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регионе построено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более 115 км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напряжением 35–220 кВ, построено 6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х подстанций аналогичной мощности.

Сейчас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ют еще на семи объектах. В этом году введут новые мощности 50 МВт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ТЭЦ-1 на баз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Курил,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мощность энергетики на островах увеличится вдвое. К стро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приступят в 2025 году.

Почти 7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влекли к регулярным занятиям спортом

Итог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казали, что 67%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В ходе отчет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2023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развитии спорта,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 Помимо хорошей работы,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комфортного жилья, у людей должны бы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уделяю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центр бокса и обновленное здани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В селах Горнозаводск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троили крытые универсальные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На 20 спортобъектах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е ремонты.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ется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и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олимпийского уровня. В Макарове сдадут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а в 2025 году – возведут ФОК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еще 25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 За этими высокими – по общероссийским меркам – показателями стоит комплексная работа властей всех уровней и личная вовлечен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звитие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регионе появились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высокого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 комплекс «Аква Сити», центр единоборств,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д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возведени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Десятки объектов строятся и реконструируютс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а созда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озволяет принима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При этом акцент ставится также на доступность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в районах, что делает спорт по-настоящему доступным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Александр Гринберг.

Помимо спорта,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фера культуры. В 2023 году сданы сельский ДК с библиотекой в Ново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м году сдадут дом культуры в Адо-Тымово и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Шахтерск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о конца года также заверша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еще в трех селах: Соловьевка, Онор и Соко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сь новая сцена Чехов-центра, репетиционные залы для занятий

вокалом и хореографией,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и мастерские для художников, появились 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ы,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состоялся масштабный концерт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кроют цирк,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овременник»,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училища и акустический зал для симфо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тся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юного зрителя при филармонии, новый корпус централь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а также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ный зал филармонии на тысячу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Еще одна немаловажная задача – это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для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Активно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14 объектов.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ляжи на побережьях. К лету новые зоны отдыха появятся в 11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одолж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цы премиального класса. На горах Красная и Острая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подъемники, обустроить 30 километров новых трасс и установить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При этом,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в отчете,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чтобы создать еще больше разноплановых условий для их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и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6,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ерееха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в 2023 году

В рамках двух программ на островах расселили окол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В 2023 году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хали 6,5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ят еще 6 тысяч человек.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жилья в регионе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отчет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ша задача – ликвидировать аварийный фонд, дать людям комфортное жилье. Для этого мы прилагаем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Первую программу завершили досрочно – первыми в России. Приступили ко второй и планируем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расселить еще расселить около 4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которых проживают почти 1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регионами задачу – к 2030 году обновить 20% жилья. Мы ее решим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ередине мая ключи от новой квартир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получила жительница Долинска Фаина Панфилова.

– Квартира двухкомнатная, небольшая спальня с видом на парк. Если сделают отдельный вход в парк от дома, будет очень здорово. Вид из окна очень хороший. Самое приятное – огромная кухня, о которой я мечтала. Это мечта любой хозяйки,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же запущен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ая ипотека». Волонтеры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работают с семьями и помогают 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ными ипотеч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ого жилья.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ю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Семейная ипотека», ипотека с господдержкой 2020, Сельская и ИТ ипотеки.

Ежегод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вводят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ового жилья. Дома и целые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возводят как региональные, так и федеральные застройщики.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создают со всей сопу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 Вызовы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стали стимул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и перехода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всех отраслей, структур и организаций. Но благодаря грамотным управленческим решениям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а не только выстояла, но и уверенно идет в рост. Значи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насел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модернизацию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еселение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ш регион вошел в десятку регионов – лидеров по вводу жилья в 2023 году.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ыразили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ли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и заявили о готовности обеспечить необходимо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поле для ее реализации, – отметила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На севе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ПИК» строит комплекс «Уют парк», гд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арковая зона, парковка, школа на 1800 мест и три детских сада по 290 мест в каждом. В этом же комплексе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построят 1300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Также ДОМ.РФ передаст в аренду еще 169 квартир в новостройках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 в ЖК «Зеленая планета».

В Корсакове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плекса от группы «Самолет». В «Горизонте», на юг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строили два детских сада на 240 мест, вскоре там появится еще школа на 550 мес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시·단편소설·수필과 수기 등 3부문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6월 1일(토)부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이 문학상은 한글문학 창작활동 장려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등 3부문을 진행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모 작품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사람은 신예·기성작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발표 한글 창작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역대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에 응모할 수 없다.

시와 단편소설 주제는 자유이고, 출품 가능한 편수는 각 3~5편(시), 1~3편(단편소설)이다. 수필과 수기는 거주국 내 사회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낀 경험이나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현지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 이민 및 정착 과정 중 겪은 본인 또는 가족 친지의 체험을 쓰면 된다.

각 부문에서 대상(상금 500만원)과 우수상(상금 250만원), 가작(상금 100만원)을 시상하여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재외동포청(oka.go.kr)·코리아넷(korean.net)·소통24(sotong.go.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 '2024 재외동포 문학의 창'에 수록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35개국 279명 707편이 접수됐으며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 문학상은 지난 26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상자들에게 모국 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4. 6. 1.(토) ~ 6. 30.(일) 23:59 (한국시간 기준)

응모 자격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공모 부문
시, 단편소설
· 자유 주제
수필·수기
· 거주국 내 현지 사회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낀 경험
·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현지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교류 경험
· 한글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관련 경험
· 이민 및 정착 과정 중 겪은 본인·가족·친지의 체험
· 기타 자유 주제

접수 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korean.net) 온라인 접수
① 코리아넷(korean.net) 공지사항 접속
②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③ 작품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발표
· 2024년 9월 중
· 재외동포청(oka.go.kr), 코리아넷(korean.net), 소통24(sotong.go.kr) 홈페이지

시상 내역

부문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수상자별 상금
대상	1명	1명	1명	500만원
우수상	1명	1명	1명	250만원
가작	2명	2명	3명	100만원

문의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이메일 dbyhe@korea.kr
전화번호 +82-32-585-3212

공모 신청은 ①6. 1.(토) - 6. 30.(일)간 ②코리아넷(korean.net)

전세계 한인경제인 수장이 되기까지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의 휴먼스토리

월드옥타, "모국과 상생하는 단체 위상 재정립" "수출 침병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100년 비전 세울 것"

(전호의 계속)
회장이 청년이던 시절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해외에 나가 큰 사업가가 될 것이라 상상해 보셨나요?

-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만해도 자식들이 판검사되길 바라셨잖아요. 저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서울의 유명 대학 법학과에 떨어졌죠. 그때 드는 생각이, "법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 갔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미련은 남았는지, 경영학과를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목은 다 따놓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했지만 떨어지고, 결국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덕분에 작년 연말에 영예로운 '연세대학교 행정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투사 시절 부인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세요?

-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후, 군대를 가야 해서 카투사 시험을 보게 됐죠. 제가 카투사 시험 1기예요. 당시 영어와 국사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대학원을 2년 마치고 논문만 쓰고 갔으니 나이를 좀 많이 먹고 간 거죠.

카투사는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다 보니, 카니발이나 페스티벌이 자주 열렸어요. 우리 본부 중대에 카투사가 스물 두세 명 되거든요. 그때 맨 아래 후임들 다섯 명이 다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온 애들이었는데, 페스티벌 파트너를 데려오라고 하니 자기 과 역할 생들을 데리고 왔죠. 거기에서 파트너를 정해 가지고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상병을 막 달았을 때인데, 군대는 서열이라는게 있어서 외모순에 의해 제일 고참 병장의 파트너가 되었죠.

부인께서 가장 미모가 출중하셨다는 얘기로군요? (웃음)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파트너가 되셨나요?

- 카투사는 토요일에 외출을 나갔다 일요일에 복귀할 수 있는데, 그 후임이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 갔더니,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그녀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고 제 인생의 파트너까지 되었습니다. (웃음)

군 제대 후 첫 직장은 어디셨어요?

- 대성산업 주식회사라고 대성연탄을 만드는 회사죠. 서울 도시가스 대구 도시가스 등과 함께 에너지 쪽으로는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당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세계 서열 22위 정도로, IMF 때도 살아 남았던 알찬 회사였죠. 해외사업부에 들어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이었는데, 그때 대우 자동차는 차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차를 대우상사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했거든요. 당시에 기아 김건흥 회장이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에서 만들더라도 판매는 기아상사에서 해야 한다며, 기아자동차상사를 만들었죠. 제가 1990년 1월 1일자로 스카우트 돼 가지고 기아자동차사에 입사합니다.

그러면서 1996년에 오스트리아 법인장으

로 발령까지 받을 정도 승승장구 했는데,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기아가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1999년도에 오스트리아에 남아 독립을 하기로 한 거죠. 상사가 없어지고 나서, 돌아가봐야 일자리도 없고 참으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법인장으로 탄탄대로만을 걸다가, 당사가 가장 큰 위기였군요.

IMF 시기인 1999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이나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스트리아에 남아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유럽이라는 곳이 얼마나 뿌리내리기 어렵습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죠.

전 재산을 끌어모아보니 한 1억 정도로, 그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법인장으로 있었을 때는 그나마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그렇게 일체 끊기면서 아이들도 인터네셔널스쿨에서 일반 공립학교로 보내야 했죠. 영어대신 독일어만 하는 학교로 가야했으니,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죠.

그런 중에도 아이들이 잘 자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3, 5학년 때 건너와 유럽 교육을 받는 동안 국적을 바꾸지 않고 둘 다 한국 군대까지 다녀왔죠.

현재 큰 아이는 우리 회사를 다니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어요. 제 사업을 이어 받아야겠죠. 둘째는 영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데, 현재 영국 로펌 소속으로 싱가포르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 첫 번째로 나는 카톨릭 신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꺼번에 모든 걸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주는 것은 없어요. 기쁨은 이 만큼 슬픔도 이 만큼 주고 아픔도 이 만큼 주는 거고, 그게 진리예요. 단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다보면 길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신의(믿음과 의리)예요. 신뢰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신의입니다. 신뢰는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신의'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믿음과 의리를 일컫는 말이죠.

젊은이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해외에서 살기가 힘들고 외로운데, 동포의 입장에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 주지하다시피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촌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동에서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아래 신냉전체제에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서플라이체인을 새로 지금 구축해나가고 있는 상태라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국(서울)=동포저널】 이석수 편집인 (다음 호에 계속)

95세 사할린동포 "고국에 못갈까봐 60년간 무국적자로 살았죠"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주사 담은 구술 기록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혹시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조국인 대한민국에 안 보내줄까봐 차별받으면서도 60년간 무국적자로 살았죠."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경분(95) 씨의 말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8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한 이 씨는 사할린의 탄광에서 일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1941년 이주했다.

광복 후 귀국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했던 부모님은 사할린에서 살다가 작고했다.

대한민국이 1990년 러시아와 수교를 하기 전까지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잇힌 존재였다.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등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던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현지에 남겨졌고, 냉전 시대에 귀국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혹시라도 국적이 바뀌면 귀국길이 막힐까봐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무국적자로 버텨온 이들도 많았다.

수교를 계기로 한국 방문길이 열렸고, 1992년부터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돼 5천여명이 조국의 품에 안겼다.

사할린에는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영주귀국 후의 임대주택에서 사는 이 씨는 "모국에서 이런 좋은 집도 주셨지. 생활도 마음 놓고 정말 편안하게 있게 되니까 자녀들도 안심하고..."라며 감사를 표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과 광부·간호사 파독 60주년(2023년)을 기념해 재외동포 이주사를 구술 채록했다.

이어 최근 사할린 한인, 고려인, 파독 근로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채록한 이주사 영상을 공개했다.

김영근 센터장은 "재외동포의 구술 기록 영상은 우리 국민이 재외동포의 삶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요 재외동포 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해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생생한 이주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센터 유튜브 채널(youtube.com/@OKc-cente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гостей радовала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выступлен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г собственными руками сделать закладку из фетра, сплести нить судьбы с натуральными камнями, посетить другие интерес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а также попить чай из самовара с баранками.

За один день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ее тонны семенного картофеля, двух тонн мясной, молочной и хлебобу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20 тысяч корней саженцев, рассад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지적 토너먼트 "우리가 아는 러시아"를 진행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열린 "우리가 아는 러시아"지적 대회의 결승전에 14개의 최강 팀이 참가했다. 이는 сахалин 주 정부 보도국에서 전했다.

"결승전 결과에 따르면 1 위는 "로마노비 브 베가흐"팀이 차지하고 2위는 "#팔라라타노메르웨스트(6호번 병동)"팀에 수여되었다. 3 위는 <극동 지역의 "포토그래피(극동지역의 사진가들)">가 차지했다."고 보도되었다.

결선 진출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에 답했다. 마지막에는 세르게이 나드사딘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장으로부터 영상으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지역 수도의 거리 중 하나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인물에 대해 질문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турнир «Россия, которую мы зна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4 сильнейших команд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финал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Россия, которую мы зна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финальной игры 1 места удостоена команда «Романовы в бегах». «Серебро» – у команды «#палатаномершесть». Замыкаю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Фотографы»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говорится в общении.

Финалисты отвечали на несколько блоков вопросов. В конце они получили видеовопрос от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Он спросил про человека, в честь которого назвала одна из улиц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сахалин 공공 활동가들이 주민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중

сахалин 자원봉사자들이 소셜 미디어 채팅방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보냈다. 자원봉사자들은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해 의류와 음식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여성용 옷은 항상 구할 수 있지만 남성용 옷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이한 점은 남성들이 여성과는 달리 대부분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상태 마지막까지 옷을 입을 말입니다. 저희는 깨끗하고 결함이 없는 옷만 받습니다."라고 사회 활동가 이 왜 채슬라브가 말했다.

새 옷과 중고 옷 모두 기부할 수 있다. 상하지 않는 식품 및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다. 이동식 수거소가 월요일 12시부터 14시까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마르셀" 쇼핑센터(콤무니스찌체스키 대로 86번지)에서 운영된다. 또한 평일에는 9:00~18:00, 토요일에는 10:00~14:00에 레니나 거리 234B 번지에 있는 "활성 교육"비영리 단체 사무실에 연중 내내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을 갖다줄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최대 10kg의 물품을 수거한다.

"сахалин 주민들은 자선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주일에 2-3봉지의 물품을 꾸준히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우리 광고를 스스로 찾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왜채슬라브가 덧붙였다.

сахалин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옷과 음식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7 (914) 747-58-51(바체슬라프)로 문의하면 된다.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ждут помощь от островитян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кинули клич о помощи по чатам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водят регулярный сбор одежды 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для людей без определенного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 одиноких пенсионеров.

«Женские вещи нам несут постоянно, а вот мужские намного реже. Есть особенность: мужчины носят их в основном до последнего,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они в приличном состоянии. Мы принимаем одежду исключительно без дефектов, чистую», — поделился общественник Вячеслав И.

Пожертвовать можно как новую одежду, так и бывшую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Также к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принимают нескоропортящиеся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хозтовары. Мобильный пункт сбора работает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 12:00 до 14:0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адресу: ТЦ «Марсель»,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86 в. Кроме того, сда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можно круглогодично в офисе АНО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234Б по будням с 9:00 до 18:00, а также по субботам с 10:00 до 14:00.

В неделю волонтерам удаётся собрать до 10 килограммов вещей

«Сахалинцы очень вовлечены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стабильно приносят в неделю 2-3 пакета с вещами. Люди находят сами наши объявления. Мы им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и они нам тоже, потому что не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знают, куда девать ненужное», — добавил Вячеслав.

В случае, если у сахалинцев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дать одежду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лично, то волонтеры готов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ехать и принять помощь.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связаться по номеру: +7 (914) 747-58-51 (Вячеслав).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상트페테르부르크 сахалин한인회 최영구 회장의 부인 최영애 씨가 중환으로 2024년 5월 30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에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сахалин한인연합회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КО АСК)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председателю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Цой Ен Го в связи с кончиной супруги Цой Ен Ай.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